

인생 2막 즐기는 6070 KJ카드 '큰 손'

1분기 사용 내역 분석해보니

사용액 5593억, 지난해비 16% 늘어
60대·70대 이상, 증가율 1.2위
50대 이상 이용액이 절반 차지
광주은행 '불타는 청춘' 패키지 출시



송종욱(59) 광주은행장이 지난 4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 광주은행 본점에서 중장년층 특화 금융상품 '불타는 청춘' 1호 가입자로 나서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올 1분기 광주·전남 60대 카드 사용액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은 지역 인구 40%를 차지하는 중장년 소비층을 겨냥한 금융상품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올해 1-3월 KJ카드(개인신용·체크) 사용액은 55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14억원보다 16.2%(779억원) 증가했다.

연령대별로 카드 사용액을 전년과 비교해보면 10대를 제외하고 60대 사용액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60대는 지난 석 달 동안 749억원을 썼는데, 이는 1년 전(606억원) 보다 23.7%(143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60대에 이어서는 70세 이상 증가율이 22.4%(185억원→227억원)로 뒤를 이었다.

이외 50대 16.8%(1265억원→1477억원), 40대 16.7%(1365억원→1592억원), 30대 11.7%(844억원→942억원), 20대 5.3%(471억원→496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광주은행 카드 사용액의 43.9%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차지했다. 50대 사용액 비중은 26.4%로, 40대(28.5%)와 박빙을 이뤘다. 60대 비중은 13.4%, 70대 이상은 4.1%를 나타냈다.

10대 사용액은 2.0% 비중에도 그쳤지만 지난해 78억원에서 109억원으로 40.6%(32억원)나 증가했다.

광주은행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연령대별 신용 카드 이용내역을 분석해보니, 50대 1인당 이용액은 53만6000원으로, 40대(53만5000원)와 30대(49만3000원)를 제쳤다. 60대 이용액은 46만

6000원, 70세 이상은 37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단 부채를 기피하는 고령 금융소비층 특성상 60대와 70세 이상 연령대만 체크카드 이용액이 신용 카드보다 많았다.

50대 체크카드 이용액은 신용카드보다 6만 7000원 적은 반면, 60대와 70세 이상 체크카드 이용액은 각각 2만9000원, 2만5000원 많았다.

최근 74세 배우 윤여정이 한국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활동적 중장년을 뜻하는 '액티브 시니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유통업·금융업·제조업 등 전 산업계는 지역 경제 주축으로 거듭나는 중장년층을 사로잡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었다.

광주은행은 50대 이상에 특화된 금융 패키지 '불타는 청춘'을 최근 선보였다. 이 상품은 입출금 통장과 적금, 예금, 신용·체크카드 4종으로 구성됐다.

'액티브 시니어'가 은퇴 이후에도 능동적으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 혜택을 마련했다.

'불타는 청춘 통장'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각종 수수료를 면제하고 해외 송금 수수료·환전 환율을 50% 우대한다.

'불타는 청춘 적금'은 기본 금리 1.2%에 최고 연 0.5%포인트 금리를 우대 받을 수 있다. '불타는 청춘 예금'은 기본 금리 1.13%(4월30일 기준)로, 연 최고 금리가 1.33%까지 적용된다.

'불타는 청춘 배태량 카드'는 중장년 고객의 수요가 많은 병원, 약국, 주유, 소풍 부문에 특화됐다.

병·의원·요양병원과 약국 업종 사용액의 10%까지 현금으로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슈퍼마켓·주유소·사우나 업종에서는 5% 상당 캐시백이 제공된다.

국내외의 모든 가맹점 이용금액에 기본 0.1% 캐시백이 적용되며, '불타는 청춘 적금'에 가입한 뒤 매달 납입 유지하면 0.1%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이번 출시를 계기로 주 소비층으로 떠오르는 '액티브 시니어'를 겨냥한 상품 개발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종욱(59) 은행장은 지난 4일 '불타는 청춘' 패키지 1호 가입자로 나섰다.

그는 "시니어 고객의 제1의 청춘을 광주은행이 동행하고자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전 연령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펼치며 지속가능한 100년 은행으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사학연금공단 부패방지시책 2년 연속 우수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평가

사학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0년도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올해 평가대상 제외기준인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2등급 이상'과 '2년 간 부패사건 미발생' 요건을 모두 충족해 2021년 평가에서 면제됐다.

사학연금은 국민권익위가 발행한 '2020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최종보고서'에 우수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공단은 업무지시 공정성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과 자회사 대상 설문조사로 개선사항을 발굴해왔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핵심가치별 10가지 세부과제 실행 ▲신고지연센터 내실화 ▲사례중심 매뉴얼 제작 ▲교육 ▲관리 프로세스 강화 등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전력 '한전 국민감사관' 10명 위촉식

한국전력은 최근 나주 본사에서 '한전 국민감사관' 위촉식을 열었다고 5일 밝혔다.

최영호 상임감사위원은 이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국민감사관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국민감사관은 전력서비스와 제도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듣고, 업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올해 처음 시행된다. 이들은 한전과 계약에 관

한 불합리한 제도와 부당한 업무처리 경험 및 개선 의견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국민 6명과 협력사 소속 4명의 감사관이 앞으로 1년 동안 활동한다.

최 상임감사위원은 "국내 대표 공기업으로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고해 청렴문화 정착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자원공사 탐진강에 수열에너지 공급 설비 구축



양진식(오른쪽 두번째) 본부장과 정종순(왼쪽 두번째) 군수가 '수열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위·수탁 협약'을 맺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 제공>

장흥군과 에너지 설비 위·수탁 협약 2년간 100억원 투입 관로 등 설치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가 장흥 탐진강에 친환경 수열에너지 공급 설비를 구축한다.

영·섬본부는 지난 4일 장흥군청에서 양진식 본부장과 정종순 장흥군수가 '수열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위·수탁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 그린뉴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 사업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탐진강 수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공기관(농촌기술센터) 제로에너지 실행, 수열 실증 시범하우스 구축, 정남진 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조성

등을 추진한다.

장흥지역에는 수열네트워크 원수 공급을 위한 취수시설과 관로 1.7km가 설치된다. 수열에너지는 물을 열원으로 '히트펌프'를 통해 냉난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여름철 수온이 대기보다 낮고, 겨울철에는 높은 원리가 활용된다.

수열에너지가 도입되면 연간 4110MWh의 전력 사용량이 절감되고 1020t 상당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된다. 영·섬본부는 30년산 소나무 15만5000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고 설명했다.

양진식 본부장은 "수자원공사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1위 기업으로서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협약을 통해 장흥군과 그린뉴딜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본부세관, 삼성전자 협력사 대상 FTA 교육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성태근)은 중소기업의 FTA 활용능력 강화를 위해 지역 삼성전자 협력사 대상으로 FTA 활용교육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일부터 26일까지 4회에 걸쳐 진행된다.

관세청의 'YES FTA 전문교육사업'을 활용해 사업 수행기관인 국제원산지정보원의 전문강사가 협력사 200여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를 실시한다.

FTA 활용에 대한 기본과정과 실무과정으로 구분해 교육을 실시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YES FTA 전문교육사업은 매달 신청을 받아 제공하고 있으며 '집합교육' 과정과 '온라인' 과정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해 1대 1로 교육하는 '수요자 맞춤형'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육일정은 매월 초 전국 본부세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이달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수강신청 하면 된다.

성태근 세관장은 "지역 내 FTA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FTA를 활용한 수출증대를 위해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사업과 관세청의 전문교육사업을 연계하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해양에너지, 기업부설연구소 광주군 하남동 본사에 문 열

광주·전남에 도시가스 공급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고 있는 ㈜해양에너지가 기업부설연구소를 세웠다. ㈜해양에너지는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본사에 기업부설연구소 '해양에너지 미래융합 연구소'를 설립하고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설립 인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연구소는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대응 등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펼친다.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체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검토도 진행한다. 해양에너지는 원격검침 등 에너지-정보통신기술(IT) 부문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해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에능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1년 5월호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듣는다는 것의 매력' 오디오 콘텐츠가 뜬다

- 소리 콘텐츠 시장 폭발적 성장
- 오디오북, 클럽하우스 사용자
- 콘텐츠 속 맞춤형 코드를 찾아봐

문화로 되살아나는 '5월 광주'

- 5월 광주를 기억하는 GB커미션
- 5·18의 기억, 위로, 치유의 무대

문화로 품은 건축물

국내 최초 '수장고형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클릭, 문화현장

지역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 '예술공간 집'

예향이 만난 이 사람

'팬텀싱어 올스타전' 활약 크로스오버 그룹 레퍼마모르 4차 산업혁명 시대 문명을 읽는 공학자 최재봉

배극남의 대중문화 X파일

70~80대 노배우는 무엇으로 사는가? 73세 윤여정 한국배우 최초 오스카 여우 조연상 수상

예향 초대석

미술품 컬렉터, 예술학 박사 문웅
"미술품 수집은 인생을 사랑하는 법"

우리 땅 우리 문화 7
자연과 문화의 깊이 목표

살고 싶은 집, 이야기가 담긴 집 4
분리된 공간에 휴식을 담은 광주 일곡동 '버드하우스'

정확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루션 'AI정전'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자신도 몰랐다

화제의 전시
<리암 길릭-더 워크 라이프 이펙트>전
파카소 '한국에서의 학살'

스포츠 이야기
위기를 넘어 날개 펼치는 KIA, 광주FC 신예들 주목

문화 바이러스 퍼뜨리는 예술단체 2
아프리카타악 그룹 '아나포'

씩씩속속 남도 한 바퀴-무안
서해 갯벌, 화로 등녕으로
무안 새터너더
생태체험과 테마파크의 즐거움
- 향토 음악, 갯벌 낙차